

조선 수신사가 본 메이지 일본 여성 - 『일동기유』와 『동사만록』을 중심으로

이 효 정*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동사만록(東槎漫錄)』에 드러난 |
| 2. 『일동기유(日東記游)』에 드러난 | 일본 여성 |
| 일본 여성 | 1) ‘오랑캐’ 나라의 여성들 |
| 1) 사행 전의 여성 인식 | 2) 자기 정체성 확보를 위한 부정적 |
| 2) 아름다운 비서구적 존재들 | 타자들 |
| 3) 교류 외적 대상들 |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876년에서 1885년까지 일본에 파견된 조선 수신사의 기록 중 『일동기유』와 『동사만록』에 나타난 메이지 일본 여성 인식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이미 첨단 근대에 진입했던 일본에서 여전히 전통사회에 머물렀던 이들이 여성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는가를 논하고자 하였다. 김기수는 『일동기유』에서 아직 비서구화된 일본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단아한 태도를 칭

* 일본 ICU 박사과정

찬하며 과거의 야만시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성리학적 관념에 충실한 인물로, 근대적 교육제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지식인 여성에 대해서도 교류 외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김기수보다 8여년 후, 한층 진화된 근대 일본에 사행한 박대양은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더욱 일본을 부정시하고 야만의 땅으로 여겼지만, 막상 도착한 그 곳은 화려한 문물의 신세계였다. 현실적으로 문명화된 일본을 오랑캐라 할 수 없었기에 그는 일본의 여성들, 여성과 관련한 풍속들을 타자화하여 젠더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소중화인의 위엄을 지키고자 하였다.

주제어 : 수신사, 김기수, 박대양, 박영효, 아토미 카케이(跡見花蹊), 일동기유, 동사만록, 사화기략, 여성 인식, 녹명관

1. 머리말

본고는 1876년부터 1885년까지 이루어진 조선 수신사(修信使)들의 메이지 일본 여성 인식을 그들의 사행 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수신사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대부분 각 수신사의 근대 견문이나 수용 태도, 사행 이후 조선에 미친 영향 등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다양한 주체와 대상 간 발생한 인식의 변화나 차이 보다는 주로 근대 수용론적 관점에서 수신사를 논해왔다.

수신사의 사행기록을 보면, 이러한 논의의 주체와 대상은 의문의 여지 없이 남성이었으며 메이지 초기 일본 여성에 대한 기술은 그다지 풍부하지 않다. 사신들을 상대하고 안내했던 사람들은 일본인 남성이었기에, 수신사가 일본 여성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수신사가 만난 여성들은, 연회에서 그들을 접대하거

나 관료들과 동반한 부인들처럼 부수적인 존재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교류가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 간의 상호인식과 이해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일본 여성 인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 본고에서는 조선 수신사의 기록 중에서 제1차 수신사 김기수의 『일동기유』와 마지막 종사관 박대양의 『동사만록』을 택하여¹⁾ 전근대 조선인이 바라본 근대 일본 여성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일동기유(日東記游)』에 드러난 일본 여성

먼저 제1차 수신사 김기수의 사행 배경을 살펴보자. 근대는 균일하게 시작되지 않았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을 끝내고 조선에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외교 형태를 요구한다. 조선은 이를 사대교린의 禮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다가²⁾ 1875년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맺고 답례로 사신 파견을 약속한

1)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의 원문 출처 및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김기수, 『일동기유』, 국역 『해행총재』15, 파주:한국학술정보, 2008, 97~304쪽; 박대양, 『동사만록』 국역 『해행총재』16, 파주:한국학술정보, 2008, 482~557쪽. 원문도 병기한다. 수신사 기록으로 해행총재에는 『일사집략(日槎集略)』과 『사화기략(使和記略)』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사집략』은 1881년 조사시찰단이었던 이현영이 쓴 책으로, 그의 임무가 세관업무였던 만큼 그에 관련된 기록이 많다. 그 성향도 김기수와 대동소이하다. 『사화기략』은 1882년 제4차 수신사로 파견된 박영효가 쓴 책이며, 그의 성향이 전통 교린체제 보다 서구식 근대에 우호적이었음으로 추후 다른 이들의 기록과 함께 개화파의 여성인식을 논할 때 따로 다룰 생각이다. 본고에서는 비교의 대상으로 참고하였다.

2) 메이지 유신 원년(1868년) 대마도변에서 정권 교체를 조선에 통보하였지만, 서계 중 『我邦皇朝』, 『皇上之盛意』, 『奉勅』 등의 문자사용이 문제되었다. 이러한 문자의 사용은 여태까지 지속된 조선과 일본 간 대등의 禮(交隣關係)를 파괴시키고 일본이 자국을 조선보다 우위에 위치시킴으로 불손한 표현을 했다고 해석되었다.

다. 이때 과견된 사신이 1876년 제1차 수신사 김기수(金綺秀)이다.

새롭게 건설된 근대 국가 일본을 상대해야 했던 수신사는 그 명칭이 바뀌는 등³⁾ 통신사 시절과는 다른 특징도 보였지만⁴⁾ 여전히 전통적 교린 질서에 머물러 있었던 조선에서 수신사의 선발은 통신사 시기와 마찬가지로 ‘문학적’ 소양이 그 기준이 되었으며, 김기수 자신도 유교적 관료이자 지식인으로서 사행의 임무를 다하고자 하였다.⁵⁾ 다시 말해, 김기수는 당시 전통질서의 조선 사대부로서 ‘근대’라는 시대적 전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본에 과견되었던, 과도기의 수신사였다.

그는 “훗날 전원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낼 적에 田夫, 野叟와 더불어 이국의 기이한 풍속을 밭이랑 사이에서 이야기하기 위하여”⁶⁾ 귀국 후 1년이 지나 『일동기유』를 남겼다. 『일동기유』는 총 4권 29개 항목의 기사본말체이며, 기사본말체를 택한 것으로 보아 김기수가 비록 개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는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변화하는 일본 사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또 상세히 기록할 필요성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1) 사행 전의 여성 인식

『일동기유』의 『商略』에서는 김기수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 여러 지인들로부터 들은 정보들이 등장한다. 그 중 일본 부녀자들을 기술한 부분

3) 수신(修信)이란, 구호(舊好)를 닦고 신의를 두터이 하며, 사명으로써 인도하고 위의로써 이루어 과격하지도 맹종하지도 않으며, 태도를 장중 근신케 하여 임금의 명령을 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使以修信名。修信者。講舊修好。敦申信義。辭命以導之。威儀以濟之。不激不隨。莊慎自持。苟不辱君命。庶幾其可耳。『日東記游』 『商略』) 명칭은 수신사로 바뀌었지만, ‘구호’와 ‘신의’를 닦는 것으로 그 의미를 찾고 있다.

4) 이러한 특징에 대해선 하우봉, 『개항기 수신사에 관한 일연구』, 『한일관계사연구』 10, 한일관계사학회, 1999, 151~153쪽을 참고 바람.

5) 수신사 김기수(1832-1894)는 1875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관료 경력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文名)이 높았던 이유로 弘文館應教에서 정3품 예조참의로 승급, 선발되었다. (조항래, 『병자수신사 김기수사행고』, 『대구사학』1, 1969, 12쪽.)

6) 他日歸老。與田夫野叟。譚絕域奇聞於荳蔘菜畦之間 (『日東記游』 『日東記游後敘』)

은 다음과 같다.

우리 부녀는 저들이 매우 좋아하는 바인데, 저들의 부녀도 또한 우리 장부들을 매우 좋아하여, 대낮에 한길에서 가슴을 풀어 헤치고 서로 손짓할 것이니, 그대의 이번 걸음에는 반드시 이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실수는 다른 날에 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그대는 또 유람을 일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람하면 저들도 유람할 것이니, 그대는 이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⁷⁾

인용문에서 그들도 우리를 유람할 것이니 유람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때 발생한 부정적인 기억이 연장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일본 여성을 ‘성적인 유혹자’ 혹은 ‘음란한 무리’들로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과장됨이 경계심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이 유발될 정도이다. 이는 일본 여성들 중에서도 게이샤나 유녀와 같은 계층의 인물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성들 누구나가 “대낮에 한길에서 가슴을 풀어 헤치고 서로 손짓할” 착각을 일으킨다. 이러한 뉘앙스는 앞부분에 대조적으로 등장한 “우리 부녀”가 일반적인 부녀자들을 일컫는 말이기에도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인식은 통신사행의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원중거(元重擧)는 1763년 계미사행에서 “오랑캐 연인들은 通引을 가장 좋아한다. (중략) 소년을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고는 한 여인이 팔을 벌려 맞아들여 껴안는 모습을 하더니 자신의 젖가슴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곁에 남자가 있었으나 양쪽을 바라보고 웃을 뿐이었다. 면목이 있는 사람들이면서 부끄러움이 없음이 이와 같았다.”⁸⁾고 하였다. 언급한 여성들은 비록 천한 신분의 사람들 또는 창기였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위와 같은 선대

7) 我之婦女彼之所甘心也。彼之婦女亦甘心我丈夫。白晝大塗。解胸相招。子之行。必慎之。今日之失。他日之報也。子又無事乎游覽。我之遊覽。則彼之遊覽也。子其慎之。子其慎之。(『日東記游』「商略」)

8) 원중거, 『승사록』, 김경숙 역, 소명출판, 2006, 78쪽.

의 기록들이 성리학을 신봉하던 조선 사대부에게 일본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오랜 세월 각인시켰을 것이다.

또한 인용문에서는 조선 여성들을 유린하는 일본 남성에 대한 적개심도 드러난다. 이는 김기수가 외무대승 미야모토 코이치(宮本小一)와 문답할 때에도 드러난다. 미야모토는 강화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을 피해 다녔던 강화도 부녀자들의 태도가 몹시 언짢았던 듯하다.⁹⁾ 이에 김기수는 조선의 법도를 말하면서 그에게 답한다. 조금 길지만 인용하면,

이것 또한 우리나라가 귀국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 남녀의 구별은 원래부터 매우 엄격하므로 비록 친척도 5, 6촌(寸) 외에는 서로 왕래하고 보지도 않았으며, 비록 친자매(親姊妹)와 형제의 사이일지라도 10세 이후에는 한자리에 같이 앉지도 않았으며 말할 때는 반드시 방문을 열어 놓고 말하였습니다. 여항(閭巷)의 친인들까지도 모두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죽더라도 시집가지 않는 사람이 이따금 있어 저절로 풍속을 이룬 지가 지금까지 6백 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을 더욱 부끄럽게 여기고 숨어 피하여 보지 않는 것은 또 한 가지 그럴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근년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해상(海上)에 왕래하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혹 육지에 내려와서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강간(強姦)을 하고 혹은 한 여자를 여러 사람이 운간(輪姦)을 하여 즉시 죽은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중략) 지난봄에 귀사(貴使)가 올 적에도 처음에는 또한 종전의 외국인으로 알고서 이렇게 도망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귀국인(貴國人)인 줄 명백히 알았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¹⁰⁾

9) 春間之行。江華府中凡屬婦女。盡皆避匿。流離分竄。無一安堵而居者。此曷故焉。吾行中。若有雜亂悖惡之輩無知忘行之罪。吾自治之有餘。何必有此光景也。吾非欲見貴國婦女。而有此言。凡民之一日離散。有一日之害。二日離散。有二日之害。哀彼小民。其亦何罪。此若自政府出令而爲之者。則不必出令。若民自如如是者。則下令禁之。俾無更至離散之地可也。(『日東記游』「問答」)

10) 此亦我國異於貴國處也。我國男女之別。元來切嚴。雖以親戚言之。五六寸以外。不相往來接面。雖親姊妹兄弟。十歲以後。坐不同席。語必闔門。至於閭巷賤流。

김기수는 다른 외국인인 줄 알았을 것이라며 그를 달래지만, 실제 일본인에 대한 조선의 잠재적 경계심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¹¹⁾ 또한 조선의 법도가 내외를 철저히 지키는 점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재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김기수의 모습은 일반적인 당시 사대부의 여성 인식과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아름다운 비서구적 존재들

김기수는 『일동기유』에 메이지 일본의 모습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그 중 여성 의복에 대한 부분을 보면

부인도 위에는 저고리를 입고 아래는 바지를 입는다. 바지는 치마와 같으나 주름이 없으며, 뒤에서 둘러 앞을 가렸다. 걸어갈 때는 종종걸음을 하여 발걸음을 넓게 떼어놓지 않는다. 윗저고리는 남자의 것과 같으나 옷깃을 가렸고, 허리에는 큰 띠를 매었으니 넓이가 반 자(尺)나 된다. 옷은 흑색이 많고, 흑 홍색·황색·녹색도 있다. 허리띠는 홍색이 많은데, 흑 청색·황색도 있다. 옷은 모두가 금·기·나·능(錦綺羅綾)이고, 허리띠는 반드시 수놓아 짠 대단(大緞)으로 한다. 머리는 운환(雲鬢)으

亦皆一醮之後。夫死而不嫁者。往往有之。自然成俗。今六百年矣。所以外國之人。尤爲羞澁隱避而不見之。且有一事。比年以來。多有外國人往來海上。不知何國之人。而有時下陸。若逢女子。輒強奸之。或一女子而衆人遍奸之。至於卽斃者亦有之。故一見異船之來。遽波奔而浪竄。不可禁止。所以異船一過。一境蕩然。春間貴使之來。初亦以從前外國之人知之。有此奔竄耳。若明知貴國之人。則豈有此也。下次公行之來。縱不取出門縱觀。必無離散之舉矣。不必以此過慮也。(『日東記游』「問答」)

11) 이러한 인식은 왜구 침략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조선의 행실도를 보면, 왜구 약탈로 인한 피해자는 9건 중 8건이 여성이었으며(『三綱行實圖』) 임진왜란 때에는 576건 중 433건의 피해 사례 희생자가 여성이었다.(『東國新續三綱行實圖』) 행실도의 편찬과 보급이 일본을 의식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행실도를 통해 대일본인식은 부정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러한 기억들이 후대까지 전승되었던 것이다. (손승철, 『조선시대 행실도에 나타난 일본의 표상』, 『한일관계사연구』37집, 한일관계사학회, 2010, 38~84쪽.)

로 꾸미고, 쪽과 기계(歧筭)·조차(彫)로 교묘히 단장하여 고운 빛깔이 눈을 부시게 한다. 금은(金銀)의 채화(彩花)도 교묘히 서로 조화되어 완연히 한 폭의 의화(衣畵)요, 미인도(美人圖) 가운데에 있는 사람 같기도 하다.¹²⁾

일본 여성의 전통 의상을 묘사하면서 부정적인 표현 없이 그 외적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기수는 『행례』에서 메이지 일본의 의복을 소개하였는데, 먼저 남성들의 공식적인 복식이었던 양제(洋製)를 자세히 기술하고 이들이 한가히 거처할 때에는 옛날의 의상을 입는다고 하면서 남성의 전통 의상을 또 설명하지만¹³⁾ 뒤이은 여성 복식에 대해선 위 인용문에서처럼 전통 의상만을 상대적으로 짧게 기술할

- 12) 婦人亦上衣下袴。袴如裳不褻積。後遶而前掩之。步時。武相親不敢闊也。上衣同丈夫而掩衿。腰繫大帶廣半尺。衣多黑色或紅黃綠色。帶多紅色或青或黃。衣皆錦綺羅綾。帶必繡織大緞。首飾雲鬢巧粧北髻。歧筭。雕釵。寶色奪目。金銀彩花。妙相靜好。宛然是一幅衣畵。仕女圖中人也。(『日東記游』「行禮」)
- 13) 衣冠皆洋製云。其之公服也。袴貼禮無餘寬闊處。立則後而臀腿。前而外腎墳起處。不按摩而可知之。襦亦肘至肩。如袴之襯脚。近體因寬綽如僧襦。多用黑氈。或白色。白亦間以黑緯。縫裁亦須橫縱歪斜。片片相傳。而鬆寬有罅。罅隙輒可藏置物。故所以煙具。吹燈。筆研。刀鐮。時針。子午盤等。隨手而取。如探囊中也。靴用黑漆皮。前如豕喙。後有齒如屐。着如襪掩蹠而過之。脫如靴置之地然。太襯足蹠。脫之着之。俱費力。如漢女妙纏足。爲無上苦業也。帽。圓頂直壓頭腦。四有簷。塵足遮陽。或黑或白。皆用氈。或以籐絲。或龍鬚精製。或以黑緞製者。脫必手壓摺疊。置膝底或床上。臨着手起之。聲宕而屹。無復摺疊痕也。其所謂品服者。襦用金綉。綉多少而品視以高下。帽如未敷荷葉。蓋用貂皮。豪芒甚長。然其帽子見客。見長上不着。爲敬則服品服之時。皆其敬之之事也。所以手持之而已。不見其加之頭也。其舊制衣服。上衣下袴。袴如我國女袴。袴上之袴。而長垂蹠。衣如我國僧衫。而前不掩衿。衿兩邊。有繫相交如帶。而帶則無。衣底。似有單衫界嚙有繫活。扣廣狹視貴賤。而色黑白辨吉凶云。而衣袴盡用黑色。黑色則雖有喪者。無復辨焉。宴居時則其天皇以下。皆着其舊制衣裳。而頭髮皆斷之。不見其有何冠制也。惟民家不斷髮。髮作髻一寸許長。界長反屈而結之。餘則斷也。向後顛光鑑如漆。此其舊制云。襪。容足。而別一條入大拇指如掌甲者。輒曳草履或木屐。屐如俎。只有前後齒。無四圍也。亦須上設屮或絲。圍而不跟。前立一柱。拄拇指。次指之間。襪之所以別拇指。而足之所以有閑也。草履亦如之。凡鞋履之不跟。蓋其俗尙戰鬪。取有進無退之義云。(『日東記游』「行禮」)

뿐이었다. 이는 메이지 초기에는 여성에게까지 양장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장을 한 여성을 김기수가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원료관(延遼館: 엔료칸)¹⁴⁾의 연회에서 각료들과 동반한 여성들을 보았음에도¹⁵⁾ 그들의 의상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도 이 여성들이 여전히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메이지 일본에서 근대화의 주체는 남성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기에 양복을 착용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양복 착용은 1880년대 중반 녹명관이 지어진 이후 상류계층의 풍속으로 시작되었다.¹⁶⁾

일본 부인들에 대한 김기수의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부인(婦人)은, 귀하고 천한 사람은, 귀하고 천한 구별이 있고, 아담하고 속된 사람은, 아담하고 속된 구별이 있었다.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추한 사람도 있고, 풍만한 사람도 있고 섬세한 사람도 있으나, 그 성질이 유순하여 여자다운 태도인 점은 똑같았다. (중략) 어제 본 사람과 오늘 본 사람도 모두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대개 여자는 여자의 용모에 꼭 맞았던 것이다.¹⁷⁾

라고 하였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근거는 성질이 유순하고 여성스러운 태도였다. 그리하여 조선에 돌아와서도 “여자는 아리답고 예쁜 사람이 많다”¹⁸⁾고 총평하였다. 김기수는 이와 같이 일본 여성을 비

14) 1869년 완성된 일본 최초의 서양식 석조건물이다. 하마리큐(浜離宮) 내의 영빈관으로 녹명관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곳에서 각종 국빈의 초청 연회가 이루어졌다. 먼 곳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한다는 뜻을 생각해서인지 김기수는 遠遼館으로 병기하기도 하였다.

15) 森山茂曰。吾國之法。皇宮及此館內。一月三次許朝臣內眷。惟意玩賞。今適其日也。(『日東記游』「燕飲」)

16) 이경규 외, 『근대 일본의 도시문화 수용을 통해 본 여성 복식의 변천』, 『일본근대학연구』44, 한국일본근대학회, 2014, 223~224쪽.

17) 婦人。貴賤有貴賤之別。雅俗有雅俗之分。有妍有媸有穠有纖。而其爲柔爲順女子之相則一也。(중략) 昨日所見。今日所見。無不皆然。蓋女子。自有一副女子相也。(『日東記游』「人物」)

록 외적인 모습과 암전한 태도로만 평가하는 한계를 보였지만, 사행 전만났던 조선의 사대부들과는 달리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거나 폄하하지는 않았다. 단지 일정 거리를 두며 호의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칠치(漆齒)에 대해서도 “이것은 칠이 아니고 칠즙의 쓴 것을 입에 머금어 남편에게 두 가지 마음이 없음을 맹세한 것”¹⁹⁾이라 하며 일본 여성의 열(烈)을 강조하였다. 비록 ‘열(烈)’ 이데올로기에 대한 가치지향은 보이나, 음란하다거나 외설적인 오락개적 풍습이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여타의 통신사의 기록²⁰⁾과는 그 시선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여성들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이국인이 많았던 고베에 머물렀을 때 그는 서양인들을 목격하고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성년(成年)하지 않은 여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는데 한 무더기 누른 빗갈이 마치 털수룩한 개꼬리 같다. 여자의 치마는 서너 너덧 자락 뿐인데, 올라갈수록 짧고 겹겹으로 포개어 이상스럽고 빛깔은 희기도 하며 누르기도 하다. 얼굴은 얇은 비단 족두리로 가리웠는데 이는 먼지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기에 더욱 괴상스럽다. 또 코는 모두 높직하나 남녀를 물론하고 눈은 모두 음침하고 정체가 없어 마치 죽은 사람이 눈을 미처 감지 않은 것과 같다. 사람의 재주와 슬기는 모두 손에 있는 법인데, 이제 이 구라과 여러 나라 사람들의 재주와 슬기는 바로 대자연을 정복할 만한데도 그들의 눈은 이렇게도 정체가 없으니 알 수 없는 일이다.²¹⁾

18) 女多艷冶(『日東記游』『附行中聞見別單』)

19) 此非漆也。乃口含鐵汁之苦。矢夫不二心者。(『日東記游』『人物』)

20) 한태문, 『해행총재 소재 사행록에 반영된 일본의 통과 의례와 사행원의 인식』, 『한국문학논총』26집, 한국문학회, 2000, 430쪽.

21) 女子之未及笄者。散髮行。一堆黃色。龐襍如狗尾之豐。女子裳三四袷。愈上愈短。層疊異常。白色或黃色。面施紗幕。爲遠塵沙隔幕。視之尤覺乖當。亦皆準高。無論男女。目皆陰沈無精彩。如死人之目未及瞑者。凡人才慧。皆在阿睹中。而今此歐羅諸人。其才慧。則直奪造化。而其眼無精彩如此。未可知也。(『日東記游』)

서양 여성들을 보면서는 복장도 괴상하고 눈에 정채가 없다고 하였다. 김기수는 일본으로 떠날 당시에, 서양인이 자신이 오른 배에 탔다는 사실을 두고서도 매우 불쾌해하며 일본 측에 그를 하선시키도록 강하게 요구하였다.²²⁾ 당시 일본은 서양인의 도움 없이 화륜선을 가동시키기는 어려웠던 모양이나 강경했던 김기수의 태도에 결국 그 서양인을 하선시켰다. 이러한 그의 태도를 보면, 그는 서양인에 대해서는 남녀를 구분치 않고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이적시하였고 또한 문명화에 대한 서구 지향적 가치의식 자체도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²³⁾ 그는 지속적으로 근대 문물의 견문을 권하던 일본 측의 요구도 거부하거나 회피하였으며²⁴⁾ 일본 측과 한통속이 되어 (그를 견문시키기 위하여) 마차를 곧바로 숙소로 향하지 않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통사를 매질하기도 하였다.²⁵⁾

游』「玩賞」)

- 22) 見船上立一人。似洋夷。未見其下而遽收纜舉碇。探知其直爲洋人。傳語護送官曰。此雖日本船。今日之役。專送我行。則我未下船之前。是我船也。我之船。何爲乎洋之人也。亟下之勿留也。護送官曰。良是良是。然此亦外務省。爲善護信使。委送洋人者則至今進退。亦不得由我也。蓋我人行此船。尙不及此人。每有遠行。資一洋人。受其指使然後萬全無一敗也。此行此人。亦以此也。而信使之意。既如此。第當飛報外務省。待其回示。當惟命也。到此始來言。外務省回文。今纔來到云。遂下洋人。(『日東記游』「停泊」)
- 23) 1882년 파견되었던 박영효가 영국인 선장 제임스와 상의하면서 태극기를 창안하고, 도일 후에도 여러 외국 공사들과 수시로 접촉하려 했던 것 그리고 1884년 박대양이 목인덕과 함께 사행을 해야 하는 상황을 납득했던 것과 비교해볼만하다.
- 24) 김기수는 유람을 권하는 미야모토에게 “이번 걸음은 오로지 봄에 귀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온 것에 대해 회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신하는 의의는 오로지 여기에 있으며, 실로 다른 공무는 없으므로 빨리 돌아가지 않을 수 없으니, 잠깐 몇 시간만 쉬더라도 조용히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 한다. (今番之行。專爲回謝春間之禮。修信之義。實在乎此。實無他件公幹。則不得不過歸。而暫歇幾時。亦可得從容奉誨矣。『日東記游』「問答」) 이러한 김기수의 태도와 관련하여 정훈식, 『사행록의 역사적 전개와 『일동기유』』, 『열상고전연구』26, 열상고전학회, 2007, 255~285쪽; 황호덕,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소명출판, 2005, 75~99쪽을 참조 바람.
- 25) 意彼每要我遊覽。我一直不許。則彼必怪我。今欺我不識路選。恣意引我。無所不

즉, 김기수는 근대 문물로 포장된 일본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유학자로서의 체면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서구 그 자체는 이적시하였지만, 일본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외적 용모에 대한 단순한 호의와 더불어, 아마도 이 시기의 일본 여성들이 아직 서구식 개화에 적극적인 주체자로 참여하지 않았기에 이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의 머리를 어지럽히던 낯선 근대 문물과 비교해 보면, 이 일본 여성들은 사행 전에 들었던 것처럼 음란하거나 방탕한 존재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김기수는 일본의 남녀 풍속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는데,

남녀의 분별은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으니 즉 이것은 그들의 옛날 풍속인데, 이른바 경도(競渡)로써 남녀를 서로 부합시켜 혼인을 이루게 하고, 아내를 남에게 위탁하여 간음, 잉태시키고 치사(致謝)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덕공(德公)의 가중(家中)에도 빈주(賓主)를 분별하지 않았으니 사람마다 모두 그렇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그들의 공경가(公卿家) 부인들도 얼굴을 드러내고 길을 다녔으나, 다만 얹전하여 눈을 옆으로 보지는 않았으니 대가(大家)의 행동거지는 천인들과는 확연히 구별이 있었다.²⁶⁾

라고 하였다. 남녀를 분별하지 않는다거나 조선 유학자의 입장에서 비도덕적인 혼인 습속은, 예전에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두둔하고 있다. 후술할 박대양과 비교하면 그 어조나 태도가 온화하다. 또한 비록 공경가 부인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길을 다니지만 그 모습은 기품있

至。心甚可恨。(중략) 纔下車。而拿入小通事。數彼人之無禮玩弄而茫不覺察之罪。而猛杖一頓。可謂移乙之怒而彼亦恐嚇。不復敢如是也。(『日東記游』「留館」)
26) 男女之別。不甚截嚴。卽其舊俗。所謂競渡而苟合成婚。托妻而奸孕致謝。今似不然。而德公家中賓主不分。則人人皆然。故其公卿家婦人。露面行於道路。而但靜聞觀穆。不斜睨流眄。大家舉止自與鬢奴角妓。迥然有別爾。(『日東記游』「俗尙」)

고 안전하다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아마도 소중화인 자신들보다 ‘야만’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중세의 문화적 공동체였던 옛 일본이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곧 국민국가로 분리될) 일본보다 친근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가치관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여지없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3) 교류 외적 대상들

근대 초등 교육에 대해서 그는

또한 유한(遊閒)한 귀공자(貴公子)와 왕공(王公)의 규수(閨秀)들은 다만 한만(汗漫)한 필찰(筆札)만 익히는데도 또한 큰 거리, 큰 길가에 학관(學館)을 설치하고 교사를 모시고는 대서특서(大書特書)하여 학교라 일컬었다. 과공(課工)을 독려하여 엄격히 하고 연구와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5, 6세의 작은 여아들까지도 또한 서까래 같은 큰 글자를 쓸 수 있었다. 이것을 처음 듣고는 어리둥절하여 신이(神異)하게 여겼으나, 자세히 보니 그 습속이 그러한 것이었다.²⁷⁾

라며,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아이들을 학교 제도로 공부시키는 것을 신기하게 여긴다. 하지만 이를 근대적 제도로는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일본의 습속이 그러하다고 피상적으로 판단할 뿐 이었다. 이렇듯 수동적인 태도를 가졌기에 그는 일본의 근대 지식인 여성을 만나도 어떤 특별한 인상이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성리학적 유자의 관점으로만 상대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일동기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일본 여성은 단연 아토미 카케이(跡見花溪, 1840-1926)이다. 김기수는 미야모토 코이치의 집에서 그녀를 처음 만난다. 아토미는 이 연회에서 일본 귀족 집안의

27) 亦有遊閒公子。王公閨秀。只習汗漫筆札。而亦復通。衢大道。設館立師。大書特書。稱以學校。督課不貫。攻習無荒。所以五六歲小女兒。亦能作如椽大字。初聞愜悅。以爲之神。習見之。其俗然也。(『日東記游』「俗尙」)

여러 규슈들과 함께 왔는데, 아마도 미야모토가 조선 수신사에게 교육받은 (=개화된) 일본 여성을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토미는 어릴 때부터 한적(漢籍)과 시문을 공부하고 서예와 그림에 능했던 당대의 지식인이다. 그는 특히 여성 교육에 뜻을 두어 교토와 도쿄에 사숙(私塾)을 설치하고 현 아토미 학원(跡見學園)의 전신인 아토미 여학교를 열어 근대 여성교육에 선구자가 된 인물이며 뛰어난 화가이기도 하다. 김기수는 그를 처음 본 때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또 일대(一隊)의 여사(女史)가 있었는데, 아토미 카케이(跡見花溪)가 우두머리였다. 나이는 30여 세쯤 되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7, 8세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두가 왕공(王公) 집안의 규수였다. 다발머리는 옷칠같이 검고 맑은 눈동자와 흰 이가 아름다웠다. 혹은 홍색 적삼에 녹색 바지를 입기도 하고 혹은 녹색 적삼에 황색 바지를 입기도 했는데, 옷과 띠에 수를 놓고 장식물은 눈을 부시게 하였다. 모두가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렸으며, 절하고 꿇어앉는 예절도 아름답고 단정하였으니 대가(大家)의 규범임을 알 수 있었다.²⁸⁾

함께 있던 7-8세의 여아들은 아토미가 가르치던 아이들일 확률이 컸지만 그녀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다는 언급은 특별히 없이 首長이라고만 하였다.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렸으며, 외적인 용모와 예절이 아름답고 단정하다고 칭찬할 뿐이다. 여기서 김기수 수신사가 아토미에게 증여한 시를 보자.

동경 여자인 화혜씨는	東京女子花溪氏
인간 영욕을 평등시하였도다	榮辱人間平等視
종이 한 장·붓 한 자루·벼루 한 개와	一紙一毫一硯池

28) 又有一隊女史。跡見花溪爲之首。年可三十餘。餘無過七八歲。盡王公家閨秀也。髣髴如漆。明眸皓齒。或紅衫綠袴。或綠衫黃袴。衣帶錯繡。珠翠奪目。皆能作書畫。拜跪之節。娉婷爾雅。可認大家規度。(『日東記游』「燕飲」)

천추 만세 끝 가도록 생사를 같이하려네	千秋萬歲同生死
청시·묘화·법서가 모두 완성되었으니	淸詩妙畫法書全
삼절이 그대와 같으면 세상에 능히 전하겠도다	三絕如君世所傳
그러나 평생 지기를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可有平生知己未
처녀 몸에 하얀 머리털 가엾기도 하여라	阿娘白首正堪憐
천연적으로 문재가 우수한	天然繡口錦心腸
집집마다 요조한 처녀들이여	窈窕家家幾女娘
적현의 함장실로 모두 와서 배우니	函丈齋趨跡見學
성궁에서 가까운 개성 학교 옆이로다	聖宮咫尺開成傍

김기수는 시서화가 모두 뛰어나다고 아토미를 평하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평생지기를 가졌는지 처녀 몸에 하얀 머리털 가엾다”며 외적인 부분도 지적하였다. 또한 유교적인 기준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평생지기를 가지지 못했을 아토미를 가련하다 하였다. 김기수는 아토미 이외에는 모두 남성 관료나 유학자들과 수창하였는데 대개 자연풍경에 대한 감회나 양국의 우호 관계 또는 개인적인 친교를 나누었다. 지엽적인 외모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지적은 위 시가 유일하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아토미에 대한 언급이 『일동기유』의 「결식(結識)」이 아닌, 「연음(燕飲)」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결식」은 사행 중 만나 사귀고 교류를 맺은 이들을 나열한 장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결식」에는 아토미라는 인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김기수는 아토미와 시를 창수하며 담화하고 그녀의 그림을 따로 언급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²⁹⁾ 아토미를 삭제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연음」은 연회 장소, 연회에서 일어난 일들과 먹은 음식 등을 기술하는 장

29) 참고로 아토미가 김기수에게 보낸 시는 다음과 같다. (扶桑深綠映鷄林。喜見高人航海臨。彤管縱令乏詞藻。可無新句表微憂。『日東記游』 「唱酬詩」 「寫呈朝鮮修信使」) 아토미의 그림에 대한 김기수의 총평은 다음과 같다. 近日。如跡見氏。瀧和亭之手法精工。亦可謂之入妙。(『日東記游』 「技藝」)

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아토미와 그 제자들의 재능과 함께 그들이 입고 있던 옷과 머리 모양에 대한 즉물적 감상을 빼놓지 않고 있다. 여기서 김기수는 여성을 교유의 대상으로는 여기지 않았으며 주체적 대상이 아닌 관찰의 대상으로 판단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³⁰⁾

연회에서 만난 공경대부의 부인들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도 “암전하고 맵시가 예쁘므로 창기가 아닌, 가정 사람으로 생각되었으나, 조금도 숨고 피하지는 아니하였다. 매우 괴이하게 여겼다”³¹⁾라고 한 것도 이와 비슷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김기수의 이러한 인식은 조선조 통치이념인 성리학이 여성의 공적 활동을 금기시켰기에 여성들의 문학 활동이 크게 제약받았고, 남성과 동등하게 교류할 수 없는 존재들로 인식하였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³²⁾

3. 『동사만록(東槎漫錄)』에 드러난 일본 여성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조선 정부는 일본과 사후 처리를 상의하기 위하여 전권대신 서상우(徐相雨), 부대신 목인덕(穆麟德, Möllendorff)을 파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먼저 조선에 파견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 의해 한성조약(漢城條約)이 체결되어 서상우 사절단이 정작 일본에 가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거의 없었다. 이들은 결국 조약의 한 조항이었던 국서를 갖고 일본에 ‘사의(謝意)’를 표

30) 허경진·조영심, 「수신사를 통해 본 개화기 한시의 위상」, 『동북아 문화연구』2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107~108쪽.

31) 螺鬢蟠項。窈窕婣嫋。可念閨閣中人也。然了不隱避。或遠遠立而觀之。或徐行而過之。心甚怪之。(『日東記游』「燕飲」)

32) 조선 후기의 여성관은 여성이 덕(德)이 있으면 흥하고 선하지만, 재(才)와 색(色)이 있으면 망하거나 악한 것으로 보았다. (최영진, 「조선시대 사상에 나타난 여성관 : 조선시대 유교의 여성관」, 『한국사상사학』20, 한국사상사학회, 2003, 1~15쪽.)

명하기 위해 파견되는 수세적 상황 속에서 일본으로 향하였으며, 서상우는 전권대신이 아닌 흠차대신(欽差大臣)의 직함을 갖고 출발하였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파견된 이들 사절단은, 정변을 일으킨 개화파와 그들을 도운 일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종사관이었던 박대양(朴戴陽)³³⁾은 “변환의 굴이나 잔혹한 자의 무리 같은 데에 분명하게 되니(중략) 마음이 위태하다는 생각이 없을 수 없어(중략) 생사화복 하늘에 달리고, 오직 의에만 의지하여 돌아가도록”³⁴⁾하면서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다. 그에게 일본은 믿을 수 없는 곳이었으며 사행 길은 죽음을 각오한 피하고만 싶은 임무였다. 김기수가 사행 전 일본에 대해 전해들은 바만을 객관적으로 남기려고 노력하였다면, 박대양은 사행 이전부터 일본에 대해 전통적인 야만시와 더불어 반역을 도운 역당들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박대양이 남긴 기록이 바로 『동사만록』이다. 『동사만록』은 주로 사행시 겪은 일을 기록한 일기로 이루어졌으며, 후반부는 시찰내용을 문건록의 형식으로 쓴 『동사기속(東槎記俗)』과 여정 중 지은 시를 묶은 『동사만영(東槎漫詠)』으로 되어 있다.³⁵⁾

1) ‘오랑캐’ 나라의 여성들

일본의 풍속에 대해 쓴 『동사기속』의 첫 부분을 보면

33) 박대양(1848-1888)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반남박씨세보』에 따르면 자는 道一이며 아버지는 濟淳(1813-1886)이다. 박대양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관직도 없었던 서생이지만, 서상우의 천거에 의해 종사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4) 奉命於魚龍窟上豺虎叢中。(중략) 於我心亦不能無危慮。(중략) 生死禍福。一聽於天。惟義視歸。襟期自然安閑。(『東槎漫錄』 「일기」 12월 24일)

35) 필사본 『동사만록』(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승계 古3653-38)에는 따로 일기라는 부제를 달지 않았지만, 국역본에는 이 부분을 일기라 하였기에 본고에서도 이를 따른다.

혼인에 중매가 없으며 납폐하는 예절도 없다. 다만 남녀가 서로 보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비록 부모의 명령이라도 따르지 않으며,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즉시 서로 혼약(婚約)을 맺는다. 여자를 맞아 문에 들어오면, 친척과 벗을 모아놓고 신인(新人)으로 하여금 술잔을 권하게 하고 그대로 집에 살게 한다. 살다가 조금이라도 마땅하지 않은 데가 있으면 곧 쫓아 보낸다. 개가(改嫁)하거나 개취(改娶)하는 것을 꾀이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새로 시집가는 자가 자녀를 거느리고 가는 자가 있으며, 비록 태정대신(太政大臣)의 집안이라도 혼취(婚娶)는 모두 다 이와 같다. 할아버지가 같은 사촌 간에도 서로 장가들고 시집가곤 한다. 말하기에도 더럽다.³⁶⁾

라고 하였다. 먼저 혼인에 대해서는 중매와 납폐가 없는 것, 개가나 개취 그리고 죽내혼에 대해 말하기도 더럽다고 했다. 일본의 혼례에 대해서는 1655년 남용익이 “대개 사람들이 혼인할 때는 대략 모작(媒妁)·연길(涓吉)·납폐(納幣)의 예절이 있음. 혼례 하루 전에 신부 집에서 먼저 의복과 음식 장만한 것을 신랑 집에 보내고, 그 다음날 신부될 사람을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가는데 신랑 집에서도 등축과 음식을 차려 놓고 신부를 맞아들이고 양가의 친척들이 많이 모여 잔치를 베풀어 혼례를 이룬다”³⁷⁾며 대략적인 혼인의 과정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통신사행원은 중매와 납폐가 없음으로 그들의 혼인을 경시하였으며 박대양도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이다.

조선의 혼례가 중매인의 개입에 의해 議婚과 大禮, 後禮 등으로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주자가례의 육례에 준하여 혼례 당일에 치르는 大禮만

36) 昏姻無媒妁聘幣之禮。但男女相見。不愜於意。雖父母之命。亦不從。有慕悅之心。卽相結約。迎女入門。會親戚朋友。使新人侑觴。仍蓄於家。有少不稱。輒被逐出。改嫁改娶。不以爲怪。故新嫁者有率子女往者。雖太政大臣之家。昏娶並皆如此。同祖姊妹。亦相娶嫁。言之醜也。(『東槎漫錄』「東槎記俗」)

37) 凡人嫁娶。粗有媒妁。涓吉納幣之禮。昏前一日。婦家先送衣服飲食之具於夫家。翌日爲婦者。輿到夫家。夫家亦盛陳燈燭飯膳以迎之。彼此族黨。大會宴樂。以成其禮。(남용익, 『문견별록』)

해도 몇 차례의 예식으로 행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의 혼례가 간략한 것은 사실이다.³⁸⁾ 하지만, 메이지 시대의 일본을 견문하면서 에도시대부터 이어져오던 옛 풍습을 근대적 문물이나 제도보다도 먼저 언급하고, 더군다나 김기수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한 혼인풍습을 일반적인 것처럼 서술한 점을 보면, 박대양이 일본 풍습을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에 도착하여 처음 본 일본 여성들은 중화 밖의 이질적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일본 풍속은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천하게 여긴다. 모든 점사(店舎)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다 부녀자로 하여금 맡게 한다. 그런 까닭에 비록 타국 사람을 대할지라도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빛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체로 같이 목욕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다 가운데 섬 나라의 문란한 풍속은 구역질이 나게 하기에 너그럽다.³⁹⁾

앞서 김기수가 오늘날에는 문란한 풍속이 없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박대양은 일본의 일부분만을 관찰하고 기록했거나 혹은 사실과는 상관 없이 대대로 전래되어 온 통신사행록의 상투적인 내용과 표현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 여성의 복장에 대해서도 드러난다.

그들의 옷차림은 다만 소매가 넓은 주의(周衣) 하나를 입었는데, 길이는 버선목과 가지런하다. 위에는 속옷이 있어서 몸을 단속할 수 있으나

38) 한태문, 『해행총재 소제 사행록에 반영된 일본의 통과 의례와 사행원의 인식』, 『한국문학논총』 26집, 한국문학회, 2000, 430쪽.

39) 日本風俗。男貴女賤。凡係店舎接應。皆使婦女執掌。故雖對他國人。少無羞愧色。與素昧人裸體同浴。不以爲怪。海島擦俗。定以嘔腸。(『東槎漫錄』 『일기』, 12월 26일)

허리 밑은 속옷이 없어서 오르내릴 때면 붉은 두 다리가 드러나 보이며, 다리 위까지 다 보인다. 띠는 비단을 사용하였는데, 너비가 4~5촌(寸) 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인다. 옷깃이 매우 넓어서 목의 살이 드러난다. 두발(頭髮)은 두 가닥으로 나눈 것이 없고 정수리의 머리털은 기름을 발라 뒤로 드리운 것이 상관(喪冠)과 같은데, 뇌발(腦髮)과 합하여 상투를 짜고 그 위에 운환(雲鬘)을 얹어서 비녀로 압축하여 꽂는다. 이것은 전국이 다 같은 풍속이다.⁴⁰⁾

외모만 열거했을 뿐임에도 『일동기유』나 『사화기략』에서는 찾아볼 수 없이 외설적이다. 개화파였던 박영효는 고아한 자태라 하였고⁴¹⁾ 보수적이라 판단되었던 김기수조차도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여인들의 외적인 용모에 대해선 아름답다고 칭찬하기도 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박대양의 일본 견문은 일관되게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그는 김기수 수신사로 부터 8-9년이나 지나 메이지 일본을 사행했던 사람임에도 그가 묘사한 일본은,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침단의 메이지 일본이나 메이지 여성의 모습이 아닌 ‘재래화된 야만’이었다. 물론 그는 근대 문물을 견문하고 그에 대한 서술도 하였다. 화륜차를 탔고, 조폐국, 기기창, 전신국을 견학하며 박물관과 동물원도 구경하였다. 하지만 이 근대문물들의 원리나 필요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유학자로서 공자묘가 있던 태학에서 경서들이 홀대받고 양서들이 그곳을 점령해버린 상황, 더 이상 덕(德)과 문(文)이 가치지향 되지 않는 그 상황에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⁴²⁾ 이 당혹감과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식은 이전부터 익숙하게 통용되던 통신사의 수사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이해

40) 其服色只着廣袖一周衣。長與襪等齊。上有裏衣可壓腰以下。下無裏衣。登降時。赤條條的兩脚露出。脚以上亦皆可見。帶用綾緞。廣可五四寸者纏腰。衣領甚闊。項露肌膚。髮無兩髦。以頂髮塗脂油後垂如喪冠。合於腦髮作髻。加雲鬘於其上。以簪縮插。此一國同然。(『東槎漫錄』 『일기』, 12월 26일)

41) 裙影履聲。古雅翩翩。殆怡人目而滌旅懷也。(『使和記略』, 8월 14일)

42) 이효정, 『1884년 조선 사절단의 메이지 일본 체험』, 『한국고전문학』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491~499쪽.

불가능한 새 문명들이 흘러넘치는 곳에서 생기는 이질감을 완화하고자 했던 그의 불가피한 시도로 보인다.

2) 자기 정체성 확보를 위한 부정적 타자들

메이지 시대의 근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는 바로 녹명관(鹿鳴館:로쿠메이칸)이다. 1883년 르네상스 건축 양식으로 개관한 이 건물은 영빈관으로 세워졌으며 문명 수용의 전당으로써 상류층 사교계 모임, 축제, 무도회, 일본과 서구 출신 엘리트 간의 교류와 회합의 장소였다.⁴³⁾ 녹명관은 개관 이후 끊임없이 성대한 서양식 파티가 열려 대외적으로 일본의 선진 문명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줄곧 조선에 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일본은 화려한 이곳의 무도회에 조선 사절단도 초대하였다.

메이지 일본은 먼저 군복, 양복으로 남성들의 신체적 근대화를 이루고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여성들에게도 서양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노우에가 주최했던 천장절(天長節) 파티에서는 이노우에 부처 공동이름으로 초대장을 발송하였고, 초대받은 손님들도 부인들을 동반하였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천황부처를 모델로 귀족 남녀가 동등하게 출입하고 춤추는 분위기를 만들어 화족간의 사교 뿐 아니라 외국 공사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바로 이 시기부터 여성들의 머리와 복장에 서구식 근대화의 바람이 불었다.⁴⁴⁾ 이에 대한 박대양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서양의 옷을 입고, 서양의 춤을 추었다. 이것은 유신(維新) 이후부터의 풍속이라고 한다. 그 여자들의 개화가 남자들의 개화에 손색이 없으

43) 발레리 줄레조, 티에리 사취앙 외 지음, 양지윤 옮김, 『도시의 창, 고급 호텔』, 후마니타스, 2007, p.37.

44) 이경규 외, 『근대 일본의 도시문화 수용을 통해 본 여성 복식의 변천』, 『일본근대학연구』44, 한국일본근대학회, 2014, 223~224쪽.

니 개화 이전에 여자에게 좋은 풍속이 없었다는 것을 추측해 알 수 있다. 더욱 옷을 만한 일은, 나이 스물 남짓 된 한 아름다운 여인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와 갑자기 나의 손을 잡고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통역하는 사람에게 물으니, 그는 바로 육군경(陸軍卿)의 부인인데, 연회에 와 준 것에 감사하는 말이라고 한다. 나는 책상머리의 한낱 서생으로서 일찍이 창부나 주모(酒母)의 손도 한 번 잡아본 일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경우를 당하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역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귀빈을 접대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내가 이에 갑자기 혼연(欣然)한 얼굴빛을 지으며, 연회를 베풀고 초청하여 주어서 훌륭한 연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감사하였다. 이것은 속담에 ‘미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미치지 않은 사람도 따라 미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극도로 남녀의 차례나 존비(尊卑)의 법도가 문란하기에 이르렀으니, 매우 더러워할 만하다.⁴⁵⁾

화려한 서양식 무도회에서 드레스를 입고 서양식 머리 모양을 한 채, 남녀가 서양식 춤을 추고 서양식 음식을 먹는 모습은 박대양에게 생소했을 것이다. 그는 그의 손을 먼저 잡으며 서양식으로 인사했던 일본 여성들을 ‘예를 알지 못하는 미친 사람들’로 받아들였다. 박대양이 일본에서 겪었던 견문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일 것이다. 당황했던 것인지 그들이 입고 있는 서양식 옷은 묘사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2-3년 전 박영효가 이노우에 가오루가 주관한 외무성 연회에 참석하면서 담담하게 썼던 『사화기략』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다.

45) 日邦女子。皆能服洋之服。舞洋之舞。此自維新以後俗。其女子開化。不遜於男子。開化以前。女子之無善俗。推可知也。尤有可笑事。有一美姝年可二十餘者。從人海中忽握余手。有所云云。問諸舌人。此乃陸軍卿之夫人。蓋謝赴宴語也。余以床頭一書生。娼婦酒母之手。未嘗一握。忽遭此境。不覺恟恍。舌人道此是我國待貴賓第一件事。勿以爲怪。余乃遽作欣然之色。謝其設宴來速。獲參勝遊。此俗所謂狂者在傍。不狂者亦隨而狂也。男女無倫尊卑。無章至於此極。甚可醜也。(『東槎漫錄』「일기」, 1월 23일)

여러 나라의 공사와 일본 조정의 진신(縉紳)들이 모두 가족을 거느리고 와서 모였는데, 주인인 이노우에 가오루가 그 부인과 영애(令愛)와 더불어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을 맞이 하였다. 옷차림은 모두 양장(洋裝)이었다. 조금 후에 악대가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연주하니 각국의 국기를 정당(正堂)에 걸었다. 여러 공사들이 아내와 딸의 손을 서로 바꾸어 이끌고는 빙빙 돌면서 발을 구르며 춤을 추는데 그 태도가 천진난만했으니 일황의 천장절을 축하하기 때문이었다. 춤이 끝나자 음악도 그쳤다. 서서 음식을 먹는 모임을 베풀어 그 자리에 온 빈객 5백-6백 인이 탁자에 둘러서서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음식을 배부르도록 먹으니, 이는 서양(西洋)의 연회법(宴會法)을 모방한 것이었다.⁴⁶⁾

박영효는 이 일이 있고 며칠 후 조선 왕비의 성절을 축하하고자 일본 현지에서 직접 연회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그에 비해 박대양은 참석했던 연회 그 자체도 즐기지 못하였다.

어떤 이는 춤을 파하고 앉아 쉬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바야흐로 춤추는 대열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내가 곧 사방을 두루 살피자, 촛불 아래에 한 사람의 장부가 좁은 모자에 넉넉한 옷차림을 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나에게 읊하며 말하였다. “오늘 밤의 구경이 즐겁습니까?” 내가 보니, 중국 참찬관 양추(楊樞)였다. 내가 답음(答揖)하고 말하였다. (중략) “위대한 순(舜)의 세상은 멀고, 기(夔)가 나타나지 않아, 석경 치는 소리가 조화롭지 않는데, 저들이 서로 이끌고 춤추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서로 더불어 한바탕 웃고 헤어졌다.⁴⁷⁾

46) 諸國公使及日廷縉紳。皆率眷來集。主人井上馨與其夫人令愛。候門迎客。皆洋裝也。少頃。樂隊奏鼓吹。懸各國旗章於正堂。諸公使替携妻女之手。環廻踏舞。天真爛漫。所以賀日皇天長節也。舞罷樂撤。設立食會。來賓五六百人。繞卓醉飽。蓋仿泰西宴法也。(『使和記略』 9월 23일)

47) 日邦女子。皆能服洋之服。舞洋之舞。此自維新以後俗。其女子開化。不遜於男子。開化以前。女子之無善俗。推可知也。尤有可笑事。有一美姝年可二十餘者。從人海中忽握余手。有所云云。問諸舌人。此乃陸軍卿之夫人。蓋謝赴宴語也。余以床頭一書生。娼婦酒母之手。未嘗一握。忽遭此境。不覺恟恍。舌人道此是我國待貴賓第一件事。勿以爲怪。余乃遽作欣然之色。謝其設宴來速。獲參勝遊。此俗

박대양은 결국 ‘온화한’ 청국 사람 양추와 담화하는 것을 끝으로 무도회를 나온 듯하다. 낮설고 혼란스러웠을 무도회에서 그를 안정시켜주는 사람은 오직 요순(堯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중화인이었다. 더욱 재미있는 점은 박대양은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을 부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양식을 흉내 내는 일본 여성들도 동일하게 문란하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일본 남성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야만시는 좀처럼 보이지 않으며, 전통 의상과 머리 모양(춤마개) 등에 대한 묘사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타자화는 묘사 행위의 주체가 심리적으로 관찰 대상의 상위에 존재하거나 대등한 관계를 이룰 때 생긴다. 1884-5년 일본에 파견된 박대양은 아마도 도일 전부터 일본의 선진 문물에 대해 들었을 것이고, 이미 문명개화가 전 세계를 휩쓰는 절대적 가치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뿐 만 아니라 실제 근대화된 메이지 일본을 견문한 뒤에 느꼈을 충격과 기이함은 상당했으리라. 즉, 전술한 대로 박대양은 조선의 유학자로서 기기음교(奇技淫巧)를 배격하고자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일본을 이적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 여성들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관찰하고 묘사하며 부정하였다. 이는 이 여성들을 우월한 대상이나 경쟁 상대가 아닌, 관찰 묘사 가능한 하위 대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⁴⁸⁾ 즉, 문명개화를 이끄는 인종적인 우위는 점할 수 없었지만 젠더적 우월 지위는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고 그럼으로써 중화의 위기를 심리적으로 극복하고 유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所謂狂者在傍。不狂者亦隨而狂也。男女無倫尊卑。無章至於此極。甚可醜也。
(『東槎漫錄』 「일기」, 1월 23일)

48) 이효정, 「1884년 조선 사절단의 메이지 일본 체험」, 『한국고전문학』 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501~503쪽.

4. 맺음말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중화 문명의 유일한 계승자로 규정하며, 통신사를 통해 그 문명을 오랑캐 땅에 전달하는 숭고한 주체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위는 근대를 맞이하면서 역전된다. 조선은 여전히 전통사회에 머물러 있었지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끝내고 서구식 문명개화에 박차를 가했다. 다시 말해, 이때 일본에 사행했던 조선의 수신사들은 지역과 시대, 시공간을 초월한 사행을 한 셈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김기수와 박대양 두 유학자가 메이지 일본 여성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고찰하였다.

제1차 수신사 김기수는 1876년 조선의 유교 관료 최초로 메이지 일본에 건너갔다. 그는 서구식 문명개화를 의식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근대화 된 일본 여성과 개화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단편적으로만 기술하였다. 침단의 문물 속에서 유학자의 위엄은 그것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지켜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아직 서구화가 진행되지 않은 여성들의 모습은 호의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공적인 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성리학적 기준으로 교류 외적 대상으로 낮설게 여기기도 하는 등, 성리학적 가치관에 벗어나는 여성의 모습은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그로부터 8년 후 일본으로 건너간 박대양은 더욱 이중적이면서 복합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는 사행 전부터 이미 서구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란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며, 실제 일본에서 견문한 화려한 근대문명은 그를 압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중화 지식인의 정체성 확보란 더욱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기록 속에서 일본 여성들, 또 그들과 연관된 사적 풍속들은 더욱 음란하거나 야만적으로 묘사된다. 그는 이미 서구화로 문명을 이끌던 남성들 보다 여성을 젠더적 측면에서 타자화함으로써, 즉 부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중화주의의 우월함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기수, 『일동기유』, 국역 『해행총재』15, 파주:한국학술정보, 2008, 97~304쪽.
- 박대양, 『동사만록』, 국역 『해행총재』16, 파주:한국학술정보, 2008, 482~557쪽.
- 박영효, 『사화기략』, 국역 『해행총재』16, 파주:한국학술정보, 2008, 381~477쪽.

2. 논저

- 김경숙, 「조선통신사의 일본 여성 인식 고찰」, 『조선통신사연구』6호, 조선통신사학회, 2008, 1~34쪽.
- 손승철, 「조선시대 행실도에 나타난 일본의 표상」, 『한일관계사연구』37집, 한일관계사학회, 2010, 38~84쪽.
- 이경규 외, 「근대 일본의 도시문화 수용을 통해 본 여성 복식의 변천」, 『일본근대학연구』44, 한국일본근대학회, 2014, 223~224쪽.
- 이배용, 「19세기 개화사상에 나타난 여성관」, 『한국사상사학』20, 한국사상사학회, 2003, 118~146쪽.
- 이효정, 「1884년 조선 사절단의 메이지 일본 체험」, 『한국고전문학』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501~503쪽.
- 전수진·권혁진, 「녹명관이 일본 근대문화 수용에 미친 영향 고찰」, 『일본근대학연구』23, 한국일본근대학회, 2009, 69~79쪽.
- 정훈식, 「사행록의 역사적 전개와 『일동기유』」, 『열상고전연구』26, 열상고전문학회, 2007, 255~285쪽.
- 최영진, 「조선시대 사상에 나타난 여성관 : 조선시대 유교의 여성관」, 『한

국사상사학』20, 한국사상사학회, 2003, 1~15쪽.

하우봉, 「개항기 수신사에 관한 일연구」, 『한일관계사연구』10, 한일관계사학회, 1999, 151~153쪽.

한태문, 「해행총재 소재 사행록에 반영된 일본의 통과례와 사행원의 인식」, 『한국문학논총』26집, 한국문학회, 2000, 421~447쪽.

허경진·조영심, 「수신사를 통해 본 개화기 한시의 위상」, 『동북아 문화연구』2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107~108쪽.

<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Meiji Japanese
Women of Chosŏn Sushinsa
- With a focus on “Ildonggiyu” and “Dongsamannok”

Lee, Hyo-jeong

In this study, I inquired into the perceptions of Meiji Japanese women of Sushinsa's records, “Ildonggiyu(日東記游)” and “Dongsamannok(東槎漫錄)”. They dispatched to Japan from 1876 to 1885. With respect to this analysis I tried to recognize how they could secure self-identity in Japan walking to the modern high-tech, even they still lived in traditional society. In 1876, Kim Ki-soo praised the beauty of Japanese women in meekness “Ildonggiyu” and had to get away from negative view of Tongsinisa period. But he was a faithful person ever to Confucian notions of the traditional society, so he didn't pay attention to modern education system and the intellectual woman like Atomi kakei. After eight years, Park Daeyang thought Japan was a barbarian's land, but when he arrived there was a world of gorgeous high-tech. In reality, he couldn't accept civilized Japanese men as barbarians, but he thought Japanese women as barbarian. He could not take the superior position by race but gender, so he could keep his dignity of Confucian.

Key Words: Sushinsa(修信使), Kim Kisoo(金綺秀), Park Daeyang
(朴戴陽), Park Younghyo(朴泳孝), Atomi Kakei

(跡見花蹊), Ildonggiyu(日東記游), Dongsamannok
(東槎漫錄), Sahwagiryag(使和記略), Recognition of
Japanese women in Meiji period, Rokumeikan

- 논문접수 : 2015년 3월 19일
- 심사완료 : 2015년 4월 13일
- 게재 확정 : 2015년 4월 20일